

KTV

2014년 3월 31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3. 25. 17:00	시청률	0.001

【총 평】

주요뉴스와 함께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긴장감측면에서는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살아나야할 스튜디오 토크는 고루함이 느껴짐.

<라이브 이슈>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을 다룬 시의적절하고 의미 깊은 아이템 선정이 눈에 띄었음. 안중근 의사 송모기념회 안응모 이사장이 들려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에 얹힌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흥미진진함은 물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깨우쳐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구성 및 내용】

내일 새벽 한미일정상회담...한일 관계 향방은?, 네덜란드 국왕 오찬...박지성·히딩크 참석 등의 메인뉴스와 [라이브 이슈]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 <창의교육 대학의 길>, <날씨예보>로 이어지는 구성이 단조롭고 연계성이 부족함으로 인해, 산만하면서도 늘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음. '리사 켈리'를 활용한 미니코너 등 일상적인 흐름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참신하면서도 파격적인 코너>가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음.

외신들, 박 대통령 '북핵' 발언에 주목 등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 즈음한 다각적인 뉴스집중이 눈에 띄었음.

<라이브 이슈>의 경우 안응모 안중근 의사 송모회 이사장을 초대해 순국 104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거사]에 숨겨진 비사를 들어봄으로써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린 점이 돋보였음.

<창의교육 대학의 길>의 경우, 교황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역사성과 의미를 지닌 '대구 가톨릭대학교'을 선정한 점이 눈에 띄었음. 또한 홍철 총장의 경우 도식적이고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타대학 총장과는 달리 대학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느껴졌음.

【참고사항】

스튜디오 토크 코너가 두 개나 있어 지루한 감이 있는데 하나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다른 한 코너는 비교적 스튜디오에서 역할비중이 적은 리사 켈리가 취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자의 특별취재 형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나 정도는 형식을 조금 바꿔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음.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3. 25. 18:15	시청률	0.037

【총 평】

새 학기가 시작되는 3~4월은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학급과 학교에 대한 적응문제와 왕따 고민,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줄 정책과 대책들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었음. <학교폭력- 현장중심 눈높이 대책으로 해결한다>는 아이টে이 시의성 있었고 무게감 있었음. 이날 방송은 S.P.O(학교전담경찰)와 스마트폰 앱 117 Chat(학교폭력신고센터)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는데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자세하게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구성 및 내용】

중학교 학생들과 그 선배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등장한 콩트 <임평순이 또 뒀다!>, 서울경찰홍보단의 연극을 보여준 <행정개그를 아시나요?> 등이 주제를 적절히 하게 전달했음. S.P.O(학교전담경찰)에서 실시하는 SYCA(청소년문화활동)의 경우 S가 Seoul을 뜻하고 있어 서울에서만 이뤄지는 정책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맞짱대결 미녀와 야수의 SNS 정책대결>이란 서브타이틀 이후에 임평순 진행자가 '정책배틀 신의 한 방 코너'라고 멘트를 하는데 한 코너에 두 개의 제목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3월 4일 모니터링도 같은 의견)



【진행 개선점】

<정책은 노래를 타고>가 끝나고 김윤주 전문경력관이 "오늘 황감독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너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부사이므로 긍정적인 내용에서는 '매우'나 '아주'를 쓰는 것이 바람직함.

【자막 개선점】

구창환 소장이 학교 폭력 유형을 비율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픽 자막의 단위는 건으로 잘못 표기되었음.

프로그램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3. 26. 14:30	시청률	0.008

【총 평】

고령화 사회의 건강, 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노인자살예방센터, 마음 돌보미>, <노노케어> 등 사회안전망을 소개한 집중력 높은 기획 구성이 돋보였음.

고령화 시대에 대한 관심사가 높은 시청자들의 관심사에도 부합하였고, 발로 뛰어 취재한 실제 사례를 보여 주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음. 최근 문제가 되었던 원격의료 문제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잘 다루었고, 노인 자살 예방이나 노노케어 등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자체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음.

【구성 및 내용】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의 경우 영양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어 실질적으로 와 닿았음. 특히 해외 병원과의 원격협진 사례들을 보여주고 사업적 측면의 정보들을 제공해 관련 사업들이 미래 부가가치가 높다는 측면도 알 수 있었음.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에 4배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에 초점을 맞춰 **성북구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자살예방센터와 마음돌보미 봉사단의 활동, 노란리본달기 운동 등을 통해 지자체의 순기능을 알 수 있었음.** 노인이 노인을 돌보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대전 유성구의 노노케어 사례도 복지와 일자리를 한꺼번에 접근한 좋은 행정사례라고 할 수 있음.

프로그램	신문화별곡, 어울림		
방송일자	2014. 3. 26. 20:00	시청률	0.059

【총 평】

신문화별곡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현대에 나타난 각양각색의 사회적 현상들을 유쾌하게 담아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됨. 소재가 늘 특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미도 어느 정도 있지만, 잘못하면 "요즘 이런 게 있다더라" 식의 나열에 그쳐 긴장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음. 또, **테마와 소재의 편향성 때문에 주 시청자인 중장년층에게는 다소 이질감을 줄 소지도 있었다고 봄.** [솔로족들을 위한 식당], [소셜 다이닝] 그리고 [맛집 동호회] 등 젊은 층들의 새로운 식문화를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다루었음.

특히, 맛집 동호회 회원인 젊은 외국여성들의 '한국음식 체험기'가 타이틀인 {신문화별곡, 어울림}과도 잘 매치가 되었음.

【구성 및 내용】

<소셜 다이닝>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도입부의 [술로들의 외로운 식사]부터 시작해서 '맛집 동호회' 회원들의 [함께 모여서 음식만들기]까지 시종일관 현장감 있게 잘 보여주었음.

<여대앞 식당을 간 맛객들>과 <맛 커뮤니티 회원들> 중간에 삽입된 <퍼즐 카페를 찾은 커플>의 경우, 테마인 <소셜 다이닝>이라기 보다는 [톡톡 튀는 개성만점 식당 소개]에 가까움으로 인해 자칫 겉도는 느낌을 줄 소지가 있었음. <여대앞 식당을 간 맛객들>의 경우, '오징어 요리' '치즈 돈가스' 등의 다양한 음식소개와 함께 [오늘의 맛평] 등을 곁들임으로써 흥미를 더해 주었음. 단, 이 회원들이 <맛 커뮤니티 회원들>과 동일 동호회('혀')로 보여져 중복감이 없지 않았음. 반면 <맛 커뮤니티>의 경우, 호주에서 온 '레베카'와 '알렉스'라는 젊은 외국여성이 커뮤니티에 참가해서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잡채쌈밥'을 만드는 과정을 현장감 있게 Follow한 점이 신선함을 주었음.

【참고사항】

[SNS를 위한 '음식사진 인증 Shot'] 이나 [SNS 상에서의 맛집정보 공유] 등 신세대 문화를 다룬 점은 참신했음. **우리나라의 식당도 일본처럼 [2인 이상에서 1인만을 위한 공간이나 상품을 개발]해 나간다면, 이제는 [혼자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자리잡아 나간다면** 등의 <새로운 식문화의 트렌드 확산>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프로그램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3. 27. 20:00	시청률	0.041

【총 평】

장애를 극복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천수만에서 민물 송어를 바다에서 양식해 성공한 윤경철씨의 성공담을 담담하게 그렸음. 그러나 **장애를 극복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서해안 최초 민물송어 바다 양식 성공' 이란 점이 퇴색된 것 같아 아쉬웠음.** 담수 양식만 가능했던 송어를 서해안 바다 양식에 성공한 귀어인, 감전사고로 팔다리를 잃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으로 훌륭한 소재였음. 특히, 군더더기나 미사여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잘 감아냈음.

【구성 및 내용】

프로그램 도입부의 소개부분에서 '민물송어를 바다에 양식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다”는 주변인들의 인터뷰들을 짧게 편집해 넣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구성방식이 흥미로웠고 도입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음.

특히, 감전사고로 팔다리를 잃고 자살을 기도했었지만, 결국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이뤄낸 주인공의 삶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편의 휴먼다큐를 보는 듯했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생명존중의 가치와 불굴의 의지, 도전정신 등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한 소재였음.**

주인공이 민물 송어의 바다 양식이 가능한 곳으로 낙점한 곳이 충남 홍성의 천수만이고 이곳을 소개하는 내용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음. 충남 홍성의 천수만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그래픽 지도 등으로 설명해주었다면 보다 이해가 쉬웠을 것임.

【참고사항】

성공한 사업을 단순하게 소개하기 보다는 지자체 등에서 어떤 제도적 지원을 받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준다면 귀농이나 귀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음.

프로그램		이상벽의 TV 시간여행	
방송일자	2014. 3. 28. 14:05	시청률	0.089

【총 평】

<한국열차999>편에서는 한국열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발전하고 있는 열차의 모습도 함께 소개했음. 설명 중심의 흐름이 아닌 이상벽씨가 여행친구인 한무씨와 함께 열차 교통의 중심지로 제천을 찾아가며 풀어내는 이야기의 흐름이 흥미롭게 구성되어 집중력이 높았음. 특히, 스튜디오 구성이 아닌 현장중심으로 향수와 추억을 살려주는 구성이 효과적으로 살아났고, 과거에서 현재를 이어가는 흐름도 자연스러웠음.

【구성 및 내용】

4월 1일이 KTX 개통 10주년인 만큼 시의성이 높은 아이템이었음. 열차여행 친구로 코미디언 한무씨가 열차와 관련된 성대모사와 함께 열차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이야기해 내용이 풍부하고 재미있었지만, 기차에 대한 추억여행인지, 기차여행인지 다소 애매했음.

열차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편안한 대화가 보기 편했고 과거 열차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현재 변화하고 있는 열차를 둘러보는 흐름도 집중력 있었음.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제천역을 둘러보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간이역 이야기도 흡인력 있는 구성이었음.

이상벽씨가 전하는 이야기와 인서트 영상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짜임새 있는 구성이었지만 과거 열차 역사에 대한 설명과 열차 관련 대한뉴스를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음. 또, 과거 자료화면을 사용할 때는 방송 연도를 고지해 주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3. 28. 16:00	시청률	0.009

【총 평】

1960~70년대 '전설의 농구스타'였던 '신 동파' 전 국가대표를 초대, 1969년 아시아선수권 대회 우승 및 이듬해의 세계선수권 대회 '득점상' 수상 등에 얽힌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갔음.

특히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에 잘 부합할 만큼, [아시아선수권 우승] 자료화면 및 [제 8회 세계여자 농구선수권 대회 준우승] 당시의 코치로서의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을 적절히 잘 활용하였음.

【구성 및 내용】

도입부에서 [제8회 세계여자 농구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한국 여자 농구 선수팀의 활약상을 보여줌으로써 주역 중의 한 명인 '신동파' 코치를 인지시켜 주었고, 이어서 '신동파' 전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활약상(1969년 아시안 선수권과 1970년 세계선수권 대회 득점왕)을 보여주었음.

시간의 흐름을 역순으로 배치해, '신동파' 선수의 코치와 감독으로서의 위상은 부각된 반면 '전설적인 선수'로서의 모습은 다소 뒤로 밀린 느낌을 줄 소지도 있었던 것 같음.

원조 슈터, 대한민국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서브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시대를 살아온 팬 입장에서는 [농구의 신 '마이클 조단']에 버금가는 한국 최고의 농구선수로서의 '신동파'를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다루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제8회 세계여자 농구선수권 대회] 당시 {미국-캐나다-한국의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 아깝게 골득실 차로 준우승을 차지한 비화} 및 {박찬숙, '조 영란', '강현숙' 선수 등 당시 주역들의 활약상} 등을 실감나게 들려준 '신동파' 선수의 이야기가 흥미를 주기에 충분하였음.

또한, '3점 슈트'와 '팀 파울 제도'가 없던 당시에 한 경기 50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한 '신동파' 선수의 활약상을 비롯해 당시는 필리핀의 국력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서 필리핀은 TV 생중계를 한 반면 우리는 라디오중계만 한 스토리 등이, 향수와 함께 격세지감을 느끼게끔 해주었음.

【참고사항】

196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당시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무려 50점을 넣는 슈트 장면과 197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미국 유럽 등의 강팀들과의 시합에서 슈트를 몰아넣어 득점왕이 되는 모습 등 [대한뉴스] 등에 담긴 '신동파' 선수의 활약상을 좀 더 생생한 영상으로 보여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프로그램		문화유랑 2,014km	
방송일자	2014. 3. 30. 15:30	시청률	0.028

【총 평】

일곱 번째 여행지로 맛과 문화의 도시 전주가 소개되었음. 지역문화 발굴과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소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생각해 보면 전주는 이미 문화도시로 정평이 나있어 프로그램에 맞는 최적의 장소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음.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문화도시로 전주의 다양한 모습이 무난하게 소개되었지만 차별화되는 아이템과 개성은 부족했음.

【구성 및 내용】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오목대, 경기전과 함께 전통성당을 소개하고 남부시장을 찾아 순대국밥과 콩나물 국밥을 소개하는 등 전주에 대한 소개가 평이했음. 문화유랑단은 두팀으로 나뉘어 미션으로 '마임이스트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유랑'과 '합죽선 장인과 함께하는 현대문화유랑'이 전개되었는데, '미션'이라기 보다는 문화체험의 흐름이었고 미션이 주는 긴장감이나 활동성은 느낄 수 없어 아쉬운 흐름이었음. 미션의 내용을 '문화유랑'으로 제기하기보다는 '합죽선 장인을 찾아 합죽선을 만들어보세요' 등과 같이 목적이 뚜렷한 내용이 제시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음.

【참고사항】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소통하려는 문화유랑단의 기획의도를 살려줄 수 있는 지역선정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그동안 알려지고 유명한 곳을 홍보하는 흐름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발굴이 필요할 듯 싶었음.